



바다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말과 풍경 예찬

텔문도뮤지엄 6월 한 달 이진경의 '오늘' 주제전 회화·특유 서체 작품 등 '우리'를 꿈꾸는 이야기

언젠가 작가는 제주도를 말하며 '이 어도' 이야기 꺼냈다. "모질고 굵은 날들을 기어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어도를 부르며 꿈꾸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 멈추지 않는 것이다." 제주민요가 흐르던 '이여도허라' 등 제주에서 몇 차례 전시를 열었고 '고지도 탐구 프로젝트' 등 제주 소재 작업을 이어온 이진경 작가가 텔문도뮤지엄에서 6월 한 달 동안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전시에는 전작을 포함 작가 특유의 한글 서체인 '이진경체'와 오르제 등을 활용한 그림이 한데 어울려 걸렸다. 그림 사이사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글귀들과 마주하게 된다.



6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텔문도뮤지엄에서 이진경 작품전 '오늘'이 열리고 있다.

'그대 아직 살아 있는가',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머뭇머뭇', '지금' 등 오늘날 제주를 환기시킨다. 전시장 입구엔 4·3을 나타내는 표제어가 나열된 '글씨그림'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에서 '평화의 섬'까지 다다른 그 지

난한 세월을 작가는 붉은 산의 형상과 이웃한 화면 안에 한글 문자로 촘촘히 기록했다. 그래서 작가는 그 시간을 건너며 푸르른 바다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말과 풍경에 애정을 보인다. 간장, 밥, 김치, 해산, 소라, 수박, 참외, 꽃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봄'이다. 이번 전시 '오늘'이란 이름이 달렸다. '삼밭이'로 불리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미지 아래에 놓인 '오늘' 속 그것이 개발의 상징물이 아닌 거친 파도와 같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전 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 작가는 전시장을 찾는 이들을 위해 이런 글을 써놓았다. "오늘이 오늘이소서, 매일이 오늘이소서, 새지도 저물지도 말으시고 새려면 언제나 늘 오늘이소서."

지난해 제5회 고암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는 그동안 여러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금호미술관, 도쿄 현대미술관, 서울 예술의전당, 성곡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지금은 강원도 홍천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텔문도 뮤지엄 주소는 제주시 연암로 316, 2층. 연락처 755-000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mailto:진선희기자@sunny@ihalla.com)

고재만의

계곡이김훈관

<25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계만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멘, "누님, 가나귀 여주 아아가 일어산 거 뻐리지만 안심헌 집이 가불어실거라양?"
 하르바지 골멘, "아니어게, 가나귀 여주 아아가 아무탈 옷이 가는 걸 보겠헌 뎨이서 '꼭꼭' 헌명 이래저레 으상으상 헌였저게."
 오맹이 골멘, "가나귀가 촛말 착하다양."
 쯤네 골았저, "하르바님, 여주 아은 아직 오맹 잘 헌질 못 헌였주양?"
 하르바지 골멘, "오게, 남조 아은 이 구기 저 구기 헌단 여주 아은 풀을 이녀 옷독지레 울러 뻐주, 헌술 싹들었주만 그냥 심을 뵈관 내연 부축헌 구맹이서 나오랏주."

* 제주어 풀이

- *가나귀(가마귀,가마기,가매기,가매기,까마귀) : <이름>까마귀.
 - *일어산 거 뻐리지만 : 일어선 것을 보니.
 - *가불어실거라양? : 가버렸지요?
 - *아무탈 옷이 가는 걸 보겠 : 아무일 없이 가는 것을 보려고.
 - *헌뎨이서 : 한 쪽에서.
 - *으상으상 헌였저게 : 어정거렸지.
 - *오맹하다 : <움직>움직이다. 몸을 움직여 나다니거나 일을 하다. 활동하다.
 - *구기 : 구구. 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함.
 - *이 구기 저 구기 헌단 :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 *옷독지(독지,어깨독지) : <이름>팔과 어깨가 잇닿은 관절의 부분. 족지.
- 고재만 화백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여름날 떠나는 '겨울 나그네' 음악여행

슈베르트의 유명 연가곡 24곡 전곡 합창곡 연주 베이스 단원 곡 중 솔로

뜨거운 별이 내리쬐는 계절, 겨울 여행으로 이끄는 음악회가 있다. 김정연이 지휘하는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의 제101회 정기연주회다. 이날 17일 오후 7시30분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연주회는 '겨울 나그네'란 제목을 달았다.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 중 하나인 '겨울 나그네' 24곡 전곡을 노래한다. 1827년 만들어진 '겨울 나그네'는 독일의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에 곡

을 붙인 작품이다. '밤 인사'에서 시작해 '거리의 악사'로 끝을 맺는 곡으로 연인과 헤어질 슬픔을 안고 겨울 들판을 헤매는 한 청년의 방황을 그리고 있다. 제주합창단은 독창곡으로 작곡된 '겨울 나그네'를 합창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특히 제주합창단 베이스 단원들이 곡 중 독창을 맡아 기존 곡과는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솔리스트로 참여하는 단원은 출연순으로 최효림, 오준희, 한용희, 최규현, 한진혁, 김훈석, 김훈, 정용택, 김봉균씨다. 관람료 무료.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250석만 개방한다.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된다. 문의 728-2745. 진선희기자

사진 속 그곳, 제주와 우리의 이야기

서귀포시민연대 운영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 활동가·예술가 9명의 '푸른 섬 사진...' 전시

옛 사진 속 그곳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눈앞의 목적을 향해 내달리기를 강요받는 현실에서 사진을 매개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와 제주를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서귀포시민연대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이 2021년 기획전으로 펼치는 '푸른 섬 사진 속 나의 이야기'다. 진영섭 사진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회 활동가와 예술가들의 삶의 서사가 담겨져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통해 그 세월만큼 변화한 제주, 그리고 개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공감대를 피하는 시간으로 이끈다. 진 작가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모습이 들어 있는 옛 사진을 수집했고, 사진 속 장소를 찾아 같은 자리 변화된 공간에서 오늘날 성인이 된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에 얽힌 각각의 사연

을 현장에서 인터뷰하며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모두 9명이다. 서귀포에서 시웃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신숙 시인, 간드락 소극장을 이끌고 있는 오순희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대표, 강정마을 회장을 지낸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추진회 회장, 제주제2공항성산순환대체책위 위원장인 강원보 신산리 이장, 연극인인 현애란 상상놀이터 대표, 극작가이자 민속학자인 한진옥씨, 포크 듀오 '소금인형' 멤버인 음악인 양성미씨, 강연인 서귀포시민연대 대표, 전연능 제주도연합 회장을 역임한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이자. 전시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스토리 와반(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에서 진행된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첫날 오후 5시30분에는 개막 행사가 열린다. 이때는 '소금인형'의 축하 공연이 예정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 가능하다. 와반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storywawban>) 참고. 연락처 762-0615. 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우당도서관 글쓰기 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 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글쓰기로 세상을 보다'를 주제로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권귀현 작가와 함께 일상에서 글감을 찾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꾸려진다.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Zoom)을 활용해 장벽 무너뜨리기, 맛있는 글쓰기, 유쾌한 글쓰기, 싱싱한 글쓰기, 단단한 글쓰기를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 15일부터 '책섬, 제주'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6월 작가와 함께 읽는 고전

탐라도서관이 이달 26일 오전 10시 '정여울 작가와 함께 읽는 고전'으로 선정된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글쓰기로 세상을 보다'를 주제로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수강생들이 '빈센트 나의 빈센트'를 읽고 강연을 통해 해석을 공유하게 된다. 수강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제주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선착순으로 제주시민 60명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탐라도서관이 매월 한 차례 실시하는 '열두 달 고전 읽기' 독서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작가가 선정한 한 편의 고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지난 1월 박준 시인이 강사로 나선 '백석 평전'을 시작으로 매월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